

종합·해설

文 공세 차단... 단일화 주도권 잡겠다

■ 文, '후보 단일화' 공개 언급 배경 뭘까

민주당 '조직동원 경선' 봉쇄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를 공개적으로 잇달아 언급하면서 대선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까지의 야권 후보단일화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민주당통합론 문제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치열한 전략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안 후보는 지난 29일 캠프 전체 회의에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내달 10일까지 정책안을 내놓기로 해, 그 약속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고 밝혀, 단일화 논의가 이르면 내달 10일 이후 급진전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안 후보 측은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30일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권교체를 해야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공감을 표했다. "국민이 기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안 후보 측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통합론 문제인 후보 측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데 대해 역으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지지층의 전반적인 요구인 후보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하면서도 단일화 논의 시점을 다음 달 10일 이후로 정한 것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세를 차단하고 후보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안 후보 측에서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민주당과 정치색인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방식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게 먼저"라고 말한 점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 후보는 30일 오전 '행복한 아이를 위한 엄마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0일 이후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많은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다른 방법론이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안 후보 측의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후보 등록 시기에 임박해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수록,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직 동원이 가능한 경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후보 간 담판이나 여론조사까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해 온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여기에 후보등록일이나 대선이 가까워질 수 안 후보 측이 내세우는 '필승 후보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 측이 다음 달 10일 대선 공약 발표를 토대로 다시 한번 '안풍(安風)'을 일으켜 후보단일화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압승 퍼포먼스

30일 오후 화순 하니올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통합 전담여성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지역 여성 위원들이 대선 압승을 염원하는 손편지침막을 들어보이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 조국에 '러브콜'

참신한 이미지·신뢰감...단일화 지렛대 삼겠다

자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어떤 단일화방안이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이뤄야 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털어놨다.

조 교수는 안 후보의 정치색인안을 비판하며 문 후보에 호응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안 후보 주장대로) 의원 100명을 줄이려면 인구 상한을 60

우리라도 대등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TK지역의 새누리당과 비슷한 모습이 꽤 불만이 많다. 호남의 원들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의 눈으로 호남을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는 등 중재자로서 특정후보 지지로 비추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정당은 창당 때 합의한 정당개혁안이 있는데, 8년 만에 새누리당에 지지율을 앞서면서 안후보에 지지 찬성률 실패했다"고 자성하며 조 교수의 비판에 수긍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선숙, 안철수 후보 선대본부장 기자간담회

"단일화, 국민 기대 잘 알고 있다"

"호남 공약, 없게 아니라 순위 조정 중"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30일 민주당통합론 문제인 후보와 야권 후보단일화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을 끌어 모으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 정권교체를 해야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인정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일화는 국민 속에 숨어 있지 정치권에서 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등록(다음달 25일) 이전에 단일화가 가능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달 10일께 정책이 마무리되는데 그 시점까지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정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이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지역공약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가)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공약을 안 내놓는 것은 정말 어렵고 손해 보는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정직한 정치를 하려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 등을 고려해 국가 전체공약과 지역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후보는 지역적 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 발표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0월 전후가 될 것"이라며 "호남지역 공약은 호남을 다시 방문할 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호남에서 안 후보 지지도가 문 후보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호남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이다"며 "시대의 가장 앞에 호남이 있어 왔으며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안철수 지지다. 또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지를 잘 보고 있으며 그것이 안 후보 지지로 나타나



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 정치혁신 방안과 관련, 문 후보와 이견이 나타나는 데 대해 박 본

부장은 "동시에 재벌 개혁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강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한 수를 줄이고 특권을 없애는 등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당 창당 등 정계개혁이 있을 것인 전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고 가야 한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한편, 박 선대본부장은 다음달 1일 광주를 방문, 안 후보 지지모임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강기정 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지속은행 두 곳에서 불법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0) 원내대표의 첫 법정 심리절차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준비기일이 박 대표 측의 연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면서 오후 12월26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재판 또한 중요하다. 동시에 진행되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오후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19일로 예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기일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연기를 요청하면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12월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민주당통합 강기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성태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현역 의원의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다른 의원과 국회 경위를 폭행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코 폭력이 용납되는 안 되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여야 당직자 및 보좌진 4명에 대해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매 NPL 물건 특수물건

▶실전경매 배우실 분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제,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현금 / 정확한관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생양동(나이트클럽) 대3238㎡, 23090㎡ 감정가 72억2천 최저가 25억9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214489㎡ 감정가 41억9천 최저가 17억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12억9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6억9천	월출동(공정) 대1089㎡, 21108㎡ 감정가 14억4천 최저가 10억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269㎡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3억5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정가격 10억 ▷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감정가격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공정) ☞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감정가격 7억1600만 ▷ 매매가격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텍) ☞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예식장) ☞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5천 ▷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구역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충현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양동	대3238, 23090	72억	25억	3층-나이트	신원동	대372, 21119	12억2천	4억3천	5층숙박	신원동	대789, 21267	16억	4억6천	단층공정
화정동	대1094, 214489	41억5천	17억	8층예식장	신원동	대227, 21104	7억5천	3억3천	5층리빙텔	광안동	대6611, 212902	24억6천	17억3천	단층공정
차령동	대230, 21716	7억4천	5억2천	5층근린	나주동	대46, 2448	1억9천	8천	1층유휴	담양동	대10991, 212002	8억2천	5억7천	2층공정
두암동	대570, 21256	12억9천	5억2천	4층점점	신원동	대353, 21314	13억	5억8천	5층모텔	해남동	대20845, 212386	10억	1억9천	단층공정
수원동	대651, 212386	13억9천	5억7천	4층상가	화순동	대1904, 21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나주동	대3958, 212053	15억	8억7천	2층공정
신원동	대4706, 211123	18억2천	12억1천	2층상가	화순동	대1905, 21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무안동	대11028, 212868	49억	17억7천	3층공정
목포동	대1786, 21408	4억8천	2억1천	단층수원텔	대안동	대204, 21983	5억1천	2억1천	5층모텔	화정동	대3102, 211656	13억5천	6억4천	단층공정
보성동	대685, 21763	7억2천	1억6천	2층상가	영광동	대4599, 21704	5억5천	2억	3층모텔	나주동	대29710, 211826	17억3천	11억	3층공정
전북안동	대9232, 211168	12억	4억	단층점점	차령동	대40, 21718	5억	1억6천	3층상가	영광동	대85512, 214298	68억4천	22억4천	3층공정
전주전진	대665, 21988	11억4천	5억8천	2층-나이트	차령동	대253, 21545	8억	4억4천	지하공정	안동동	대4447, 212612	10억	4억5천	단층공정

아파트/빌라 박미림텔 010-8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